

2022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이자 우리학교
교양 교수인 손보미 동문을
만나보았다.



학생·소수자 인권 위원회(학소위) 본격 출범, 학소위의 방향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대학주보

국제 보궐선거 22~24일…총학은 선거 무산

이동건 기자 ehdrijs3589@kn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대표단 보궐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단위는 총학생회(총학),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융대), 생명과학대학(생대), 응용과학대학(응과대), 외국어대학(외대)과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전공/학과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 추천과 등록이 지난 9일 마감됨에 따라 선거 시행 단위의 입후보 명단이 공고됐다. 총학 선거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긴급 소집되고 해당 회의에서 총학의 임기연장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돌입과 관련한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기연장이 불발될 경우, 중운위 위원 중에서 호선돼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 53대 총학 [온:ON]은 작년 학생대표단 선거 이후 임기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전정대 [CL;CK] ▲소융대 [RE, NEW] ▲응과대 [응답] ▲외대 [봄]의 선거운동본부가 단독으로 출마해 단선으로 진행된다. ▲생대 ▲중동연은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학과·학부별로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22개 선거구 중 1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등록됐다.

국제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 입후보 현황

학생대표단 선거구 입후보 결과

선거구	입후보 여부
총학생회	×
중앙동아리연합회	×
생명과학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외국어대학	○
응용과학대학	○
전자정보대학	○

학과/전공 별 입후보율

입후보 미등록 (3 선거구) 14%

입후보 등록 (19 선거구) 86%

전체 22 선거구

국제캠퍼스 학생회 보궐선거 입후보 현황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기간은 연장된다. 연장투표에도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한 선거구는 올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후보자가 없어 선거

가 무산된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대표단은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후 임기를 시작한다.

올해 보궐선거의 경우 작년 보궐 선거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대해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공석인 단위

와 비대위인 단위가 많아서, 학기가 시작하며 (보궐선거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학기가 시작하고 공고를 내서 최소한으로 일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대면 투

표소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제캠 중선관위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위원장은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진행하지만, 대면 투표를 원하는 단위가 있다면 대면 기표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 대면 기표소도 (현장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총학생회 SNS 채널, 각 학과·학년별 메신저를 통한 ‘단톡방 선거유세’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선거운동 시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후보자들의 자율성이 보장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가 선거에 출마해야 투표를 하기에, 학생들이 투표뿐 아니라 출마 피선거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 중이다”라며 “학생들이 학생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니 조금이나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총학이 부재할 시 학내 자치 사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이원화 문제 등 양 캠퍼스 총학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총학의 부재는 더욱 아쉬울 수 있다. 앞서 양 캠퍼스 총학은 2022학년도 신입생 환영사에서 이원화 인식 개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우리학교 이원화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우리 학교 방역 계획 순서대로 신중하게

강나윤 기자 nador814@knu.ac.kr

사회적 거리 두기 조지가 완화된 가운데 우리학교도 차례로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은 이달부터

일상 회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전자 출입 명부를 잠정 중단하고, 건물별 캡스 및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확

진자 동거가족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되고, 기숙사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는 학교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유선으로 보고를 한 뒤, 코로나19 종합상황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신고서를 작성해 매일로 보내면 된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방역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교내 유증상자와 의심 환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내부 소독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확진될 경우, 즉시 행정실에 보고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는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보건소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이동을 안내받아야 한다.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룸메이트와 같은 호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면 수업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수업 결손에 대한 보완 방법도 추가됐다.

▶2면으로 계속

사령

명 〈정기자〉

강나윤(경영학 2020)

강다은(Hospitality경영학 2020)

유경민(국어국문학 2021)

황보종덕(회계세무학 2018)

홍지민(문화관광콘텐츠학 2020)